



미국, 식용가능 포장 재질상품화 냉동 샌드위치 포장 적용

장기간 분해되지 않는 포장재질 축적문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생리학적 분해 포장재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캘리포니아농업연구소의 Tara McHugh는 1백% 자연분해되는 식용(가능)포장을 올해 말 상품화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식용가능 포장재질의 주원료는 과일야채를 간 것으로 종이와 유사하며 냉동포장, 샌드위치포장 등을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햄버거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케첩맛 등으로 포장해 포장채로 후라이팬에 조리하는 경우 케첩맛 햄버거를 즐길 수 있는 등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브로콜리, 토마토, 당근, 망고, 배, 복숭아, 사과, 파파야, 딸기 맛 등 각종 맛으로 생산도 가능하다.

공기차단 포장도 가능하며 물에 약한 것이 단점 보완을 위해 야채기름지질(lipid)을 첨가했다. 이밖에도 1백% 과일바(fruit bars)를 개발, sodium, 지방, 방부제가 없고 현재 서해안 지역에서 시판중이다.

美·日, 수입식고기 원산지 첨부 합의 서류 미첨부시 일본 통관 불가

미국과 일본은 캐나다 광우병 파동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에 수입되



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키로 합의했다고 일본 농림수산업성 간부가 지난달 9일 밝혔다.

이 간부는 일본에 수입되는 쇠고기가 미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라도 일본에서 통관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함에 따라 미측과 이같은 조치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미국에 반입되는 캐나다산 쇠고기 자기 나라로 다시 수입될 가능성을 우려, 미측에 이같은 안전 조치를 요구해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5월 20일 캐나다 당국이 광우병이 탐지됐다고 발표한 후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 수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캐나다측이 쇠고기에서 뇌 등 광우병과 연계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24일자로 쇠고기에 한해서만 캐나다산 수입을 재개했다.

그간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 수입을 금지해온 일본은 이 조치를 계속 발효시키고 있다.

美 - 中, 플라스틱봉지 반덤핑 조사 오는 11월 말 예비판정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플라스틱 봉지가 가격 경쟁력 상실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경쟁국인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련 조사

를 착수한다고 미국 ITC(US Interan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발표했다.

ITC은 지난달 4일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봉지가 적정가격 이하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 플라스틱 봉지 제조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결론 짓고 세부적인 실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상무성은 세나라로부터 수입되는 플라스틱 봉지 반덤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2003년 11월 28일까지 예비 판정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 친환경화 음료용기 예탁금 추진 우유 50% 이상 함유 용기 제외

독일 정부가 환경친화적인 음료용기에 대한 예탁금(deposit)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내 포장재관련 규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이 되는 용기는 음료용기이며 환경친화적인 음료용기는 동 예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안은 의회에 제출, 논의돼야 하므로 독일 의회는 동 제안을 가을회기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6개월 후인 내년봄에 발효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의 논의과정에서 독일 포장용기업체의 로비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예탁금 부과안에 반대의사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제안 채택과정에서 우유를



50% 이상 함유한 음료용기는 이 예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들 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日,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확대

농·축·수산물 증량 비율 50% 이상 해당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지금까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왔던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식품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확대 적용시킬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설치한 「식품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가 오는 10월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시키는 원료의 가공식품 대상 리스트를 공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내년 여름경 품목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관련 2개 부처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시키는 식품의 기준으로서 원산지에 유래하는 원료의 품질의 차이가 가공식품 품질에 크게 반영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 중에서 제품 원재료중 단일 농축수산물의 증량 비율이 50% 이상인 식품이라고 하는 판단기준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뱀장어가공품 및 가다랭이포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표시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신기준에 의하면 원료가 상품가치를 크게 좌우하는 가공식품의 대부분이 표시가 의무화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전갱이와 고등어만 표

시가 의무화되어 있던 자반류의 대부분의 어종이 표시대상으로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계절에 따라 원재료 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 기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품목 리스트를 공표한 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집한 후 내년 여름을 목표로 정식품목을 고시한 후 약 1년 후에 실제로 표시를 의무화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 올레스트라 라벨링 개정

제품 표기 안해도 무방

美FDA가 최근 지방대체성분인 올레스트라(Olestra)에 대한 표기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올레스트라를 함유한 제품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FDA의 이같은 라벨링 개정은 수년간 과학조사 결과 올레스트라에 의한 소화장애 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日, 가공햇반 생산 10년만에 첫 감소

시장 포화로 전년대비 4.2%줄어

일본농수성이 발표한 가공 햇반의 생산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햇반 생산량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햇반제품이 성숙기에 이른 것임을 나타내주



고 있다.

이와 관련 농수성 관계자는 “특별한 히트 상품이 없는데다 냉동햇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먹는 무균 포장햇반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산에 따라 조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모되는 제품의 경우 견조한 수요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02년 가공 햇반의 생산량은 5년전에 비해 볼 때 4만5톤이 늘어난 24만 7천5백톤이며 이 중 냉동 햇반이 14만6천톤으로 가장 많으며 무균 포장햇반 6만6천톤, 레토르트 햇반 2만 2천톤 칠드 햇반 6천7백톤, 건조 햇반 4천9백톤, 통조림 햇반 1천9백톤 등이다.

품목 별로는 필라프나 볶음밥 등의 혼반이 11만9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10% 정도 줄어들었으며, 백미는 무균포장햇반 수요증가에 따라 9%가 증가한 6만 3천톤의 생산실적을 보였다.

또 초밥 및 주먹밥은 6%가 감소한 2만2천톤으로 조사됐다.

냉동 햇반의 생산이 10년만에 처음 줄어든 원인에 대해 농수성 관계자는 냉동 우동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는 현상과 결부시켜, 햇반 수요가 우동으로 대체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제품 라이프 사이클 면에서 이제 성숙기로 이행하고 있어 시장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美, 한국 진공포장기 재산권침해 조사 미국내 반입금지 명령 가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가정용 진공포장기계를 대상으로 관세법 337조(지적 재산권 침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2004년 9월까지 관련 조사를 벌이게 되며, 지적권 침해 판정을 내리면 해당 물품에 대해 미국내 반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싱가폴, 반도체장비 포장 회사 설립 중국과 합작회사, 미화 1천달러 매출 기대

싱가폴 어드밴텍 솔루션스(APS)는 중국 장쑤 창장 전기과학기술(JCET)과 반도체장비 포장제품을 생산하는 미화 3천8백만달러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인 창덴 어드밴스드 팩킹(JCAP)이라 명명된 이 합작법인은 한해 미화1천~1천5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CET가 초기 등록자본금 1천3백만달러 중 58.5%를 출자할 예정이며 APS는 이 합작법인의 라이선스 수수료와 장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드밴스드 시스템 오토메이션의 계열사인 APS는 특허 기술 개발업체로,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통합 플립칩 솔루션을 제공하



고 있으며, JCET는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 포장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日, 쌀 생산·유통 이력제 도입

생산자, 유통업자 신뢰향상 기대

일본이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쌀 생산·유통 이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 농촌진흥청이 입수한 해외농업 정보에 따르면 일본 전국농협연합회와 도매업자 등 쌀 유통관계자로 구성된 전국미곡협회는 생산자가 출하한 쌀 포대에 생산자와 상표, 생산연도, 등급, 농약과 비료 사용량 등의 정보가 들어간 바코드를 부착하기로 했다.

전국미곡협회는 이달초 미야자키(宮崎)현에서 생산된 조생종 쌀을 시작으로 올 가을부터 쌀 생산·유통이력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의 정보를 전달하는 현미 데이터베이스와 도매업자로부터 소매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완료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마련한 쌀 정책 개혁방안에 올해 쌀 생산·유통 이력제를 위해 8천4백만엔의 정부 보조사업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

쌀 이력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신뢰, 안심하고 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미곡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미 일본에서는 생산 이

력이 없는 쌀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도매상도 있다.”며 “국내에서도 쌀 고품질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 이력제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 比제지회사 지분 추가인수

시멘트 지대 및 골판지 제조

태국의 대기업 시암 시멘트(Siam Cement) 그룹이 제지업체 UPPC(유나이티드 펄프 앤드 페이퍼)의 지분을 예정대로 추가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칸 트라쿰-훈 시암 시멘트 부사장은 시멘트 부대용 종이와 골판지 등을 주로 만드는 UPPC의 지분 43%를 2억1천5백만바트(한화 60억원 상당)에 사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시암 시멘트 그룹 계열 제지회사인 시암 펄프 앤드 페이퍼 보유 UPPC 지분은 86%로 높아져 지배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칸 부사장은 UPPC 지분 추가인수가 역내 제지 및 포장 사업 확장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암 시멘트의 대변인은 불발 쿠데타가 필리핀의 정정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지적과 관련해 “이는 그 나라의 내정문제로 단기적인 것일 뿐”이라며 “우리의 투자는 장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UPPC는 필리핀 핀마 그룹의 자회사로 국내 골판지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